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2009.12. pp.19~47

# 고려인 시문학에 나타난 지배질서 부정의 양상

A Study on the aspects of negation against ruling  
order in Koreans' Poetry Literature

강회진(광주대 강사)

## 차례

- |                    |                           |
|--------------------|---------------------------|
| 1. 서론              | 2) 결핍의 공간 인식              |
| 2. 지배질서 부정의 양상     | 3) 강요된 이미지 거부-모국어에 대한 재인식 |
| 1) 강제이주에 관련된 기억 복원 | 3. 결론                     |

## 1. 서론

본 연구는 고려인의 시문학에 나타나는 특징을 탈식민성으로 규정하고, 텍스트의 탈식민주의적 의식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한글문단은 불모지와도 같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후 70여 년 간 명맥을 유지해온 문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조국이 광복된 이후에도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작가들은 '소비에트'라는 거대 담론 체계에 포섭되면서도 아울러 독자적인 문학을 구축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민주의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이주해온 고려인 작가가 쓴 텍스트는 이산의 경험과 그것이 초래한 결과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소비에트 치하의 속박을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통문화적 혼성성을 보이는 고려인의 시문학은 기존의 시문학과는 다른 독특한 변별성을 보이고 있다.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계속적인 마찰과 갈등을 야기시켜 피식민지인을 타자로 자리매김

##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항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1937년 원동에서 중앙 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은 역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소비에트라는 거대한 지배질서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어 교육이 수월치 않은 상황에서도 한글로 문학 활동을 지속하였다. 한글이라는 모국어를 매개로 창작활동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소비에트라는 거대한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에 환원시키기를 거부하는 저항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2. 지배질서 부정의 양상

영국이 본격적인 제국주의 전략의 하나로 이용한 식민문학은 자국의 문화적 재산에 대한 편리한 견해로 무장함으로써, 피지배 공간에 대해 문화적 우월성과 함께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식민지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은유적인 체계였다. 즉 식민문학은 지식과 가치체계를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이용하여 식민 지배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함으로써 고정된 타자를 향해 호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식민문학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통한 식민화과정은 피식민자들에게 지배 텍스트 읽기라는 정신적 폭력을 가함으로써, 식민화된 주체로 자신들과 동일화시키거나 혹은 영원히 타자의 위치로 내몰아 간다. 식민지배자들의 이러한 텍스트를 통한 동일화 과정은 그들의 지식과 교육 과정상의 내용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배언어를 교육 시스템에 도입한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전형적인 계몽주의 형태를 띤다. 즉, 피식민지배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피지배자들을 미성숙한 인간의 형태로 보고 성숙한 인간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배언어 교육이 필연적이라 보는 것이다.<sup>1)</sup> 결국, 식민문학이라 하는 것은 피식민자들의

1) 이에 대해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서구 문학의 본래적 우월성은 오리엔트 교육계획을 지지하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완전히 인정한 사실이다. -내가 믿기로는, 산스크리트어로 수합되는 모든 역사적 정보라는 것은 영국의 예비학교에서 쓰이는 보잘 것 없는 축약판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은 아니다”,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창, 1991, p.112.

특수하고도 고유한 언어와 텍스트를 말살하고 제국주의 식민문학 우월성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즉 식민주의적 태도를 합리화하여 유통시키고 대중화시킴으로써 제국에 대한 피식민지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거나 동의에 의한 통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억압된 주체는 이념에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경계선을 지키는 지배질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양상을 지니기도 한다. 탈식민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신)식민지 현실 속에서 정신의 탈식민화를 실천하기 위한 저항의지의 표현”(이경원, 2001. 6, p.10)이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저항의지의 측면에서 보면 고려인 시문학에 나타나는 탈식민성은 지배질서에 대한 부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세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첫째, 실제 기억의 복원으로,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강제이주에 관련된 기억을 호명하는 것이다. 둘째, 현실의 공간이 결핍의 공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 1) 강제이주에 관련된 기억 복원

고려인 시문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배질서에 대한 부정은 억압되어 왔던 실재 기억을 호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행위는 억압과 숨김의 상징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일탈은 흔히 어떠한 일상적·항시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현상 또는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범주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나 사고를 말한다(장상희 등, 1986, p.35). 이는 그 자체가 새로운 삶을 지향한다.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소비에트 정권은 고려인들로 하여금 ‘강제이주’나 ‘연해주’ 혹은 ‘민족’과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 강제이주에 관련한 기억들을 지워야 했다. 그러나 부인되거나 대체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던 기억들은 복원되기 시작한다. 연성용은 장편 서사시 ‘오, 수남촌’이라는 시를 통해 고려인들의 강제이주 전후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오, 수남촌, 수남촌아!/언제나 잊지 못할/ 고향마을아!/내 심은 수양버들은/얼마나 컸느냐?/정깊은 너를 두고/떠나온 그때-1937년!/쓸쓸하기도 하였다.//(...중략...)//어 지러운 화물차에 올라앉아/쓰러린 가슴 억누르며/우울한 바퀴소리,/사나운 기적소리 /잠자코 들으며 떠나오던 그날.../어디로 가는지,/무엇하러 가는지?.../정처없이 떠나 왔어라.../하루, 이틀, 한달, 두달.../가는 길 하도 멀어/날짜조차 잊어졌다.//한밤을 자고나면/백령감이 돌아갔고/또 한밤 지나고나면/나어린 꼴라가 죽었다.//(...중 략...)//이렇게 사람들은/카사흐스탄, 중앙아시아초원으로 강제로 실려왔다./무인지경 벌판으로 실려왔다./무인지경-/바람에 울부짖는 갈밭,/그 갈밭속엔/메돼지가 판을 쳤고/뱀이 육식거렸다/밤이 되면/승냥이도 울었다/실상 그것이 생지옥이었다./오, 1937년! 강제이주!//무슨 죄를 짓기에/그런 욕을 봤는지/누구도 그때 알리 없었다/선 조의 땅 버리고/살길을 찾아/로씨야땅으로 온/불쌍한 사람들이었건만//(...중 략...)//1937년, 강제이주!//그러나 생의 욕망/크고도 강하다/칼을 베어 막을 치였고/풀뿌리로 목숨을 이어갔다.//엄마, 엄마,/나는 배고파요!/발버둥칠하며 우는 아이들,/기아에 시달려/일어나지 못하는 늙은이들!//옆친데 덮치기라고/학질, 리질/갖은 질병 은 다 침노하여/수없이 사람들은 죽었다./오, 생각할수록/기막히던 그때, 1937 년!//(...중략...)//오, 저주한다,/스탈린의 개인숭배!/수만의 무죄한 사람들을/살해한 그 죄악!/대대로 잊지 못할,/용서치 못할 죄악!!!

-연성용, 「오, 수남촌」 부분(레닌기치, 1989. 11. 29, 문예페지)

고려인들 사이에서 강제이주라는 거대한 사건은 잊고 싶은,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다. 그것은 또한 한반도와 연해주라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만 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따라서 앞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작품 속에서 강제이주에 대한 기억은 억압된 채 대체 기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의 시에서 화자의 인식은 “수남촌아!”라고 고향을 호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집 앞에 심어놓은 수양버들을 기억해내면서 공간적 인식은 시간성으로 전환된다. 이때 나무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면서 공간과 시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화자는 스탈린의 ‘용서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텅빈 빈 집들/열어제끼 창

문들”을 남겨놓고 배웅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급하게, 고향을 떠나는 화물열차에 오른다. 어디로 무엇 때문에 가는지도 모른 채 “한밤을 자고나면/백령감이 돌아갔고/또 한밤 지나고 나면/나어린 꼴라가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을 겪으며 마침내 “카사흐스탄, 중앙아시아초원으로/강제로” 실려와 시작된 고려인들의 생활은 “기막”힌 “생지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이들과 노인들은 배고픔에 죽어가고 “학질, 리질/갓은 질병은 다 침노하여/수없이 사람들은 죽”어 갔다. 강제로 기차에 실려 온 곳은 “무인지경 벌판”으로 갈밭에는 멧돼지와 뱀이 우글거리는 공간으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칼을 베여 막을 치였고/풀뿌리로 목숨을 이어”간다. 화자는 고려인들의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1937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며 강제이주를 감행한 스탈린에 대해 “무죄한 사람들을/살해한 그 죄악!/대대로 잊지 못할,/용서치 못할 죄악”을 저지른 자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다음의 작품에서도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강제이주와 관련한 고려인의 서글픈 역사를 읽을 수 있다.

허출한 짐짝처럼 내던진  
화물열차에 실려왔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어째서 가는지,  
알길이 없었다.  
서른밤 서른나절을 꼬박 졸면서...  
기차가 멎은 곳은  
나무 한 대 볼 수 없고  
갈대만이 무성한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

늙은이는 병들고  
애들은 더위에 허덕였다

##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벌판을 누비며 불어오는 바람에  
 녀인의 치맛자락 날렸다

〈잉기가 어둠둥/잉게서 어떻게 살겠음등?〉  
 한숨섞인 사투리가  
 구슬프게 모래속에 묻혔다.

천막을 치고  
 땅을 갈았다  
 갈대를 베고 수로를 뚫다  
 벼씨를 뿌리고 눈물을 떨구었다.

무심한 세월이 남기고 간 세월에  
 지금은 꽃피고  
 벼이삭 설렌다

허나  
 그 누구도  
 비운의 역사를 말하지 못했다.

다만  
 천산에 쌓인  
 태고의 백설만이  
 고려인의 반세기를 알고 있었을뿐...

—박현, 「무심한 세월이 남긴」 전문(레닌기치, 1989. 12. 26, 문예폐지)

인간은 뒤돌아보는 능력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뒤돌아봄  
 은 인간 이성의 존재 방식으로, 인간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다. 뒤돌아봄으로써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를 되비출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재

의 나를 새로 살게 만드는 행위(유현식, 1999, p.208)이다. ‘뒤돌아보기’는 ‘잊지 않고 돌이켜보기’라는 뜻에서 일반적으로 ‘기억’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위의 시에서는 강제이주 당시의 상황과 이주 직후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다. “허줄한 짐짝처럼 내던진/화물렬차에 실려” “어디로 가는지,/방향도 모르고…/어째서 가는지,”도 모르고 “서른밤 서른나절을 꼬박 줄면서” 도착한 그곳은 “갈대만이 무성한/중아시아의 허허벌판”이었다.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땅을 갈고/갈대를 베고/수로를 만들”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늙은이는 병들고/애들은 더위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다. 시간이 흘러 그 땅에는 꽃이 피고 벼이삭이 출렁이지만 “그 누구도/비운의 력사”에 대해 말하지 못하며 살았던 시절임을 밝힌다.

프란츠 파농(프란츠 파농, 이석호 역, 1998, p.53)은 『검은 얼굴, 하얀 가면』에서 흑인이 ‘검둥이’라는 말에 의해 문명화되지 못하고 개화되지 못한 존재로 추락한다고 주장한다. 즉 흑인의 육체에 각인된 검은 피부는 그들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라 생각하게끔 만들며 스스로 타자화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 질서에서 피식민지인의 몸은 언제나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상흔을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제한된 사고와 활동만이 허락될 뿐이다.

소비에트 지배체제 아래 고려인은 억압적 대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유롭게 말하기, 자유롭게 행동하기, 자유롭게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기되어 온 역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지배질서 안에서 억눌린 주체가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계에 대한 거부의 몸짓이라 할 수 있다.

양원식의 다음 시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알아보았노라, 이 생활을  
못 알아보기엔 너무나도 험했던 생활  
나는  
기나 긴 간난신고의 길가에서  
황량한 시베리아 벌판에서  
억울한 중상, 추방을 당하고도  
공손히 떠나오다 숨이 켜고

## 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죄없이 피살된 어른들,  
 피기도 전에 애처롭게 꺼져버린 어린이들  
 수만겨레들의 낮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이 닳도록 빌고 빌어서도  
 끝내 구원은 못 받은  
 소리 없는,  
 그러나 크나 큰 비명이기도 합니다

(...중략...)

바로 그이가  
 갓은 고통 겪어온 세대의 살아남은 전형...그러나 노인님,  
 오늘날엔 또 무엇이 염려되어  
 조심스레 그리도 돌레를 살피십니까?

오, 지나간 나날,  
 어둠의 장막이여!  
 공손히 우리를 풀어놔 달라

(...중략...)

하물며 사람이야  
 자유를 왜 원하지 않으랴  
 지나간 나날이여  
 무슨 일을 너는 저질러 놓았는지  
 봉대 밑에서도 상처는 아물지 않고

(...중략...)



## 고려인 시문학에 나타난 지배질서 부정의 양상 9

손위 세대들이여! 실로 그대들은  
오랫동안 말할 줄 모르는 병어리로  
돌담 안에서 질식하며  
순종의 변민으로 괴로웠습니다

(…중략…)

조심과 공포의 껍질이기도 했고  
뻔한 이치로만 둘러쌓이여  
제 궁리는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했습니다  
뜻밖에 바로 옆에  
살인귀들이 있을까봐

-양원식, 「우리의 상속은」 부분(2002, 카자흐스탄의 산꽃, pp.26~31)

식민주의에서 피식민자들은 문명의 세례를 통하여 순응적인 주체로 만들어 지고 문명의 가면을 쓴 식민자들은 지배를 정당화하려 들며 그들을 포섭하려 한다. 상위주체들의 일방적인 시선만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위주체가 자기중심적인 주체의 시선으로 본 것들에 대해 언급을 한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억압적 강제와 상징의 틀로 이미 제시되었던 고정관념을 깨는 것과 다름없다.

이 시에서 화자는 강제이주를 소재로 하여 낯선 이국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고려인들의 삶에 대한 기억을 불러와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 고려인이었다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은 “못 알아보 기엔 너무나도 험했던 생활”이었으며 강제이주시에도 아무런 반항이나 저항 없이 “공손히” 추방을 당했다. “죄 없이 피살된” 고려인들은 “수만겨레들”의 한 맺힌 “넋”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을 갖게 된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이 닳도록 빌고 빌”었지만 “끝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다. 그러나 강제이주 당시 살아남아 여전히 논일에 여념이 없는 “갓은 고통 겪어온” 노인조차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둘레를 살” 피느라

## 1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마음 놓고 일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시행에 나와 있다. 바로 “뜻 밖에 바로 옆에 살인귀들”이 있을까봐 늘 주위를 살피고 경계를 주시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오랫동안 말할 줄 모르는 병어리로/돌담 안에서 질식하면서” 살아야 했다.<sup>2)</sup> 이러한 상처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거나 낫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는 “붕대 밑에서도 상처는 아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만 “공손히 우리를 풀어놔 달라”고 말한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기억은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창고에 숨겨져 있다며, 은폐기억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망각은 기억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기억의 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쾌락원칙에 지배되는 인간은 현재의 기억들이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면 그것들을 재빨리 망각이라는 이름으로 무의식에 저장한다. 망각의 형태로 불리는 은폐기억들은 억압과 반복, 자리바꿈, 전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거나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상황이 달라져 다시 호출할 상황이 되면 망각의 이름 대신에 기억의 형태로 다시 복원된다. “제국의 몰락 이후에도 식민 헤게모니는 잔존”(더글러스 로빈슨, 정혜옥 역, 2002, p.41)한다고 할 때 이러한 억압된 기억의 복원 행위는 현재 상황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이자 소극적이거나 탈식민적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배체제로부터 망각을 강요당한 부인된 기억이자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들,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는 망각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러한 기억들을 하나 둘 복원함으로써 고려인들은 스스로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다. 이는 현실의 공간이 결핍의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표출하는 양상과 이어진다.

2) 박명진은 고려인들을 히틀러 통치하 체코 프라하의 거대한 ‘게토’에 유배된 소수민족에 가깝다고 말한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유럽 지역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인종 말살 정책’을 펼쳤다면,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가스실’에서 살해하기보다는 아예 ‘소비에트인’화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2004, p.323.

## 2) 결핍의 공간 인식

루카치는 신이 살던 세계는 행복했다고 말하며 이때를 두고 “천공의 불빛과 내면의 불꽃이 서로 뚜렷이 구분되었지만 서로에 대해 결코 낮설어지는 법이 없는 그 자체로 완결된 서사시의 시대였다. 그러나 신이 떠나버리고 신이 살던 시대의 여명만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시대, 총체성의 세계가 파괴되고 다양한 개별적 삶만이 존재하는 시대”(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1989, p.29)라 했다. 이렇게 봤을 때, 문학은 버림받은 시대의 서사시이고 선형적 고향이라는 기표를 잃어버린 인물들의 고향 찾기를 기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강제이주 후 지배계급과의 동일화를 통해 정체성을 찾고자 한 고려인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자신들이 지배계급과 같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거부의 방식으로 지배질서에 대한 부정과 저항의 양상을 보인다. 강제이주에 관련된 기억의 복원과 마찬가지로, 현실 공간이 결핍의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 여기에도  
봉선화 울밑에 피었구나  
밤이면 우리 누나  
꽃잎 뜯어 손톱마다 물들이곤  
나에게 붉은 손톱 자랑하던  
흘러간 그날이여!

봉선화 꽃잎 속에 어려오는  
누나의 얼굴!  
잊었던 그 세월 살아나는 듯

아, 여기에도  
추억 깊은  
누나의 꽃 피었구나

## 1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아직 봄은 아니어라

산야의 백설이 덮였으니  
 봄이라 말하기 이르거니  
 허나  
 눈 속에서 봄풀은 솟아나고  
 얼음 밑에서 조잘대는 물소리  
 처마에 달린 고드름에  
 떨어지는 물방울  
 새 계절을 아뢰는데  
 봄은 추위를 밀어버리며  
 마음 속에 맴돌고 있다.

-박현 「봉선화」 전문(고려일보, 1996. 3. 8, 문예페이지)

시 속 화자는 “봉선화” 꽃잎을 보며 누나를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잊혔던” 시간들의 기억을 불러들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잊혔던”이라는 단어이다. ‘잊다’의 피동사인 이 단어는 다분히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누군가로부터 잊도록 강요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잊혔던” “흘러간 옛날”을 불러들인 지금은 “봄”이 부재한 시대이다. 봄은 있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시절이다. 흘러간 옛날은 누나와의 따뜻한 기억이 존재하는 충만한 시간이다. 반면 지금 ‘여기’에도 봉선화는 피었으나 ‘아직 봄’이 아니다. 생명이 소생해야 하는 “봄”임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상실한 지금은, 눈이 덮인 산처럼 모든 것이 얼어있는 상태이다. 즉 현실 공간은 결핍의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봄이라 말하기 이른” 이 공간에서 단지 마음속에서만 봄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봄은/마음속에 맴돌고 있다”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자는 “눈 속에서 봄풀”이 솟아나듯 희망을 간직한 채 결핍의 공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니

눈에 보이는 건 누구스 비행장  
출입문 옆에 마중 나온 사람들  
그 중엔 조선 녀자도 서있구나

어째서 그가 나를 찬찬히 보는지  
암만 봐도 기억되지 않누나  
어디서 본 여자인가  
까만 눈에 얹전히 서 있는 여자

어쨌던 길이나 물어볼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차차 알 수 있겠지!  
려관으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나는 조선말로 물었다

그는 불시에 곱게 웃는구나  
나의 마음 사로잡는 미소여  
어느덧 녹아내리는 이내 마음  
어쩐지 마음은 그에게 쏠리는구나

나를 찬찬히 쳐다보던 그는  
수집어하며 로어로 대답하네  
조금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당신이 무어라 말했는지...  
아니, 제 말도 모르십니까?  
할 수 없이 로어로 대화가 되었다  
예, 제 민족어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조선 녀자가 아니란 말이요?  
나는 조선 녀자가 아니라  
순전한 까라갈빠끼야 여자예요

## 1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그리고 또 다시 생글 웃는 모습  
계속 마음을 흔드누나

무슨 실수나창피한 일이건만  
웬일인지 내 조선 녀자의 미소를  
한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천번이라도 실수를 했겠다

-우제국, 「조선 여자」 전문(레닌기치, 1976. 8. 26, 문예폐지)

우즈베키스탄 내 누꾸스는 아랄해가 있어 강제이주 당시 많은 고려인들이 정착한 장소 중 한 곳이다. 화자는 누꾸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들 중에서 “출입문 옆 마중 나온” 한 여자를 조선 사람이라 생각하고 반가운 마음에 조선말로 말을 건다. 그러나 “까라칼빠끼야 여자”인 그녀는 화자의 물음에 답을 할 수 없다. 결국 두 사람은 “로어”로 대화를 나누지만 이 “로어”조차도 그들에게는 외국어이다. 카라칼팍 사람들에게는 카라칼팍어가 있고 조선 사람에게는 조선어가 있으나 둘 다 소수민족인 까닭에 지배질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모국어를 쓰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외국어로 말해야 하는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언어가 달라 완벽하게 소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조선 녀자의 미소를/한번만 볼 수 있다면/나는 천 번이라도 실수를 했겠다”는 말처럼 화자는 모국어로 말할 수 있는 완벽한 소통의 공간을 꿈꾼다.

태산을 놓고  
야산을 말하며  
애목을 보고  
고목이라 하는 시인  
그 연고 모르겠소.  
나무음 돌고  
풀뿌리 굽틀거리는

봄철을 숲이 읊는 시인  
 그 한숨 알수 없소  
 그 심정 모르겠소...

-김광현, 「그 연고 모르겠소」 부분(꽃피는 땅, p.42)

시 속 화자는 “태산을 놓고/야산을 말하며/애목을 보고/ 고목이라” 말하는 시인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시인은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늘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나무 움 돌고/풀뿌리”가 꿈틀거리며 돌아나는 봄이 되어도 시인에게 그 봄은 희망이 아니라 “한숨”만 나오는 서글픈 계절인 것이다. 이러한 시를 쓰는 시인의 연유를 모르겠다고 조롱하듯 말하지만 정작 화자 자신도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자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양상은 다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쓰고 찢어버린다  
 또 쓰고, 찢어버리고 다시 써본다

우리 삶 있는 그대로 쓸 수만 있다면  
 경종으로 될 글을 쓸 수 있다면

나 역시 시대의 산물이기에  
 한시도 불안치 않을 때가 없다  
 세월의 줄달음에서 뒤떨어지기 싫기에

정도 이상 기뻐할 수도  
 악의를 품을 수도 없음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친구들이여,  
 너무 책망치 말아다오

## 1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나의 양심만은 언제나  
조상 나라와  
살고 있는 나라의 숨결에 맞춰  
생사고락 같이 하려고 애쓴다오

-양원식, 「바라는 바」 전문(양원식, 2002, p.25, )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은 “삶 있는 그대로 쓸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짓된 글을 “쓰고 찢어 버리”는 일을 반복할 뿐이다. “기 빼할 수도”, “악의를 품을 수도”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화자는 늘 불안을 품고 살아간다. 이는 비단 화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말에서처럼 대부분의 고려인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 쓰고자 하는 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 불안을 품고 살아간다. 이것은 사회의 억압이 공존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삶에 “악의를 품을 수도 없”다고 말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자조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이렇듯 고려인들에게 현실은 결핍의 공간인 셈이다. 그러나 “양심만은 언제나/조상 나라”에 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조상의 나라’ 것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양상으로 확산된다.

### 3) 강요된 이미지 거부—모국어에 대한 재인식

한 민족은 그 언어를 통해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고 민족의식을 공고히 한다. 따라서 언어는 혈통, 환경, 역사, 기질과 함께 민족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된다. 또한 언어는 문화의 형성, 발달,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은 그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 발현되는 것은 당연하다. 응구기 와 씨옹오(Ngugi wa Thing' o)는 “언어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인 문화와 정치, 부의 사회적 생산 그리고 한 인간이 자연 및 타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응구기와 씨옹오, 1995, p.76)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려인 시문학이 문학성을 떠나 가장 주목받아야 점은 바로 그



들이 모국어로 모국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움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에 위배되는 것이다. ‘조선어’를 통한 민족적, 인종적 ‘기억’을 재현한다는 것은 불온하고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국어는 ‘모국’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국어’ 자체가 내뿜는 언어적 아우라에 의해 ‘모국’에 대한 상상을 무의식화 하는 작용을 한다(이명재 등, 2004, p.345).

모국어  
그의 품에 안길 때  
그의 음향 속에 들 때  
나는 활개를 펴노라  
의젓이 영예를 느끼노라  
새 금줄 종이에 박노라니  
모국어는 나의 동반자  
그러니 외롭지 않다  
슬프지 않다  
행복이 나를 쳐 든다

-맹동욱, 「모국어」 전문(레닌기치, 1973. 8. 7, 문예폐지)

화자는 ‘모국어’를 들으며 “활개를 펴”고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힘든 상황에서 서도 화자를 지켜주는 것은 다름 아닌 ‘모국어’이다. 삶의 “동반자”인 모국어가 있기에 화자는 “외롭지 않다/슬프지 않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민족성(ethnicity)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 민족 집단의 언어동화는 그 집단의 사회문화적 동화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이렇게 볼 때 위의 시 속 모국어는 모국과 등가물로 생각할 수 있다. 모국이 있으므로 현실의 지난한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새는 작아도  
목청은 높아라

## 1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작은 새의 고향소리  
강산을 마슬 듯...

허나 그 고향속에  
숨은 뜻 알 수 없어라  
듣고도 모를 소리  
읽어봐도 모를 소리!

쓰고 쓰고 또 써도,  
많이 많이 썼던들 무엇하리  
내용없는 글 쓰지 말고  
알기 쉬운 제 말로 쓰자!

- 김중세, 「새는 작아도」 전문(레닌기치, 1990. 2. 28, 문예폐지)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한다 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의미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은 한낱 고향에 불과하다. 듣는다 해도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다. 글도 숨은 뜻을 알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읽는다 해도 읽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어려운 외국어로 “내용 없는 글”을 “쓰고 쓰고”, “많이” 쓰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알기 쉬운 제 말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제 말”은 모국어 즉 조선어를 말한다. 화자는 위의 시를 통해 “새는 작아도/목청은 높아”서 강산에 다 올려 퍼지듯 우리가 쓰는 “제 말” 역시 새처럼 작지만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민족어(ethnic language)를 통해 한 민족 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 주체성이 세대에 걸쳐 전승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민족어를 어느 정도 잘하느냐는 민족 문화와 정체성이 세대 간에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볼 때 하위주체들의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화의 전달과 소통의 수단인 언어를 빼앗는 것이다.<sup>3)</sup>

1937년 강제이주 후 조선말 학교, 대학, 전문학교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sup>4)</sup> 이에 대해 김필영(2004, p.70)은 “일부 고려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련 당국이 민족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제지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이 폐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주장한다. 덧붙여 “고려인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폐지된 것은 쓸데없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하루 속히 러시아말을 잘 배워 소련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뜻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외부 간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제이주 당시 소련 당국은 블라디보스토크 시에 있는 고려사범대학에 있는 도서관을 불 태워버리는 등 한국어 교육에 대한 폭력을 가한다. 그 책이 학생들과 교사들에 의해 우여곡절 끝에 원동에서 크즐-오르다로 전해진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원동에서 주권 소비에트하에서 달성한 모든 죄다 것을 잃어버렸다. 고려사범대학, 사범전문학교들이 없어지고 소중학교들이 다 모국어로 교수하지 못하게 되고 로어로 교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60세 이하의 세대들은 모국어를 전혀 모르고 있다. 크슬오르다시로 옮겨 온 고려사범대학에는 훌륭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혁명 전에 러시아 학생들이 조선에 가서 얻어 온 유일무이한 중세기서적들까지 있었다. 그때 그 대학 총장으로 있던 유태인 뽀깁이란 자가 조선서적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려 그 조선서적들을 자동차에 실어 다가 썩르다리아강에 던지기도 하고 혹은 불에 태워 버리기도 하였다. 참으로 눈물나는 일이었다. (...중략...) 조선인 문화기관으로 남겨둔 것은 《레닌기치》신문과 〈조선극단〉뿐이었다(김세일, pp.15~16).

1938년 당시의 상황을 그린 위의 글처럼 스탈린은 집권기간 동안 철저히 한 인민화를 말살시켰음을 알 수 있다.<sup>5)</sup>

3) 제국주의적 억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언어를 조종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교육제도는 ‘표준’ 메트로폴리탄 언어를 규범으로 세워 놓고 다른 모든 ‘변형’의 언어들을 불순한 것으로 규정한다. 김성곤, 『탈식민주의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1992, 여름호, p.18.

4) 1923년부터 1933년까지 약 10년 동안은 소련 조선족들이 정치·경제·문화 여러 면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연해주 지역들에서 조선민족 구역들이 생겨났고, 블라디보스토크 시에는 고려사범대학, 국립조선극장, 어업대학, 고려학부 등이 있었고, 우수리스크 시에는 고려 사범전문학교, 하바로프스크 변경 기관지 선봉신문, 국영출판사 고려출판부 고려간부 양성소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조선말 신문들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연해주에 3백여 개의 조선말 소·중학교들이 있었다. 정상진,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지식산업사, 2005, p.209.

## 2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우리의 세계관을 구성한다. 대영제국 역시 군사적인 힘과 물리적인 힘으로만 다른 나라를 지배를 한 것이 아니다.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지인 모두에게 세계와 자신을 특수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제국의 언어를 삶의 자연스럽고 진실된 질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내면화하면서 지속시키는 것이다. 과거 일제가 조선을 식민화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실행한 것 역시 조선어 말살 정책이었듯이, 소비에트 당국은 언어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고려인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폐지된 경우 보다는 고려인 학교 자체가 폐지된 경우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스탈린 치하에서 자신을 고려인이라 인식하거나, 나아가 자신을 고려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자초하는 행위와 다름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요된 이미지를 거부하고 모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모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의식은 다분히 지배질서에 대한 부정의 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모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다음 시를 보자.

분선아, 선옥아, 어서 잠깨라  
아침해 저리도 밝게 비치니  
선생님 별써와 기다린단다  
늦으면 그 어찌 부끄러울가.

5) 이에 관련한 소설로는 한진의 단편 「공포」(한진(1990) 오늘의 빛.)가 있다. 이 작품은 리빠벨 화학박사후보의 체험담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원동 조선사범대학을 크즐오르다로 옮겨오면서 함께 실어온 도서관의 고서적들이 뒤흔들이라는 유태인 대학장의 지시에 의해 비밀리에 소각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리빠벨은 책들을 소각하던 화부와 격투를 벌여 결국 알마아타 도서관으로 책을 옮긴다는 내용이다.

6)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르게이는 1930년 12월 2일 우수리이스크 니콜스키 지역 니콜스키 시골에서 셋째로 태어났다. 1937년 이주 때 그의 온 가족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바르타” 주변 체르노브라는 마을에 살게 되었다. 어린 시절은 하치르치 지역 “부도노브” 농장에서 보냈다. 1942년 가장인 그는 다른 고려인 남자들과 같이 노동군에 동원되었다. 그는 거기에 1946년까지 있었다. 그 동안 어머니는 아이들 7명과 같이 살았다. 한 세르게이는 그 시절 대부분 아이들과 같이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에서 4학년까지 공부를 하였다. 그러다가 그 학교가 없어진 후 러시아어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를 졸업했다. 고려인문화협회 역, 강회진 등 역, 『우리들의 영웅』, 타슈켄트 니자미사범대학교, 2007, p.67.

우리들 모두다 학교로 가자  
 저벌은 해님도 함께 가잔다  
 선생님 배워준 글자글자는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거야.

- 김중세, 「해돋이」 부분(해바라기, p.192)

화자는 “선생님이 배워준 글자”가 “아침 해”처럼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어서” 학교에 가자고 채근한다. 이들에게 글자를 배우는 일은 해가 돋는 일처럼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두운 현실을 해처럼 밝혀줄 수 있는 “희망”은 바로 “분선”이나 “선옥” 같은 조선인이 배우는 조선의 “글자”인 것이다.

눈뜨고 못보면 소경이라네  
 일하고 난 겨를 타서 배우고 또 배우자  
 앞선자는 이끌고 뒤선자는 따라서  
 가자 겨겨 고교 구구  
 제 민족어 몰라서야 수치리

입있고 말못하면 병어리라네  
 일하고 난 겨를 타서 배우고 또 배우자  
 아버지는 이끌고 어머니는 재촉하여  
 가나 다라 마바 사..  
 제 민족말을 몰라서야 수치리

귀있고 못들으면 귀머거리라네  
 일하고 난 겨를 타서 배우고 또 배우자  
 오빠는 선생님 나는 따라배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 2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제 민족어 몰라서야 수치리

-리창달, 「배우자 우리 글」 전문(레닌기치, 1988. 12. 24, 문예폐지)

위의 시도 충분히 계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눈 뜨고 못보면 소경”이며 “귀 있고 못 들으면 귀머거리”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 시의 화자는 “제 민족어 모르면 수치”이니 아무리 바빠도 “일하고 난 겨를 타서”라도 모국어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다. 미래를 위해 자식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다시 말해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

이주 1세대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 활동은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학은 소멸되어 가는 정체성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담론적 투쟁의 방식이라고 할 만하다. 다음과 같은 들뢰즈의 지적은 고려인 작가들의 정신적 지향점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배 문학이 득세하는 어떤 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은 불행이다. 그러한 불행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은 마치 체코의 유대인이 독일어로 글을 써야 하듯이, 또는 우즈베크인이 러시아어로 글을 써야 하듯이, 지배 문학권의 언어로 글을 써야 한다. 그는 구멍을 파는 개처럼, 또는 땅굴을 파는 쥐처럼 글을 써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의 고유한 물밑 세계, 자신의 고유한 사투리, 자신의 고유한 제3세계, 자기 자신만의 황량한 세계를 고안해내야 한다(들뢰즈 · 가타리, 조한경 옮김, 1997, p.37).

위의 말을 참고할 때 소수자인 고려인들이 문학행위에 있어 모국어 표기를 고집하고, 또한 모국어를 통해 조국의 풍습과 인종적 특징을 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뿌리 지키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소비에트라는 지배질서 안에서 고려인들은 지배체제 중심적 가치관으로 인해 정체성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 분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얻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반동일화를 통해서 악한 주체가 상징된다. 선한 주체

는 자신을 규정하는 담론구성체에 동의하지만 악한 주체는 강제된 이미지를 거부하고 그것에 ‘역대칭’ 자세를 취한다. 그리하여 악한 주체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나는 로씨야 원동  
이만강변 조선사람이다  
백두산 신령이 먹이지 못해  
멀리 강 건너로 쫓아낸  
할아버지의 손자로다

로씨야의 “마마”보다도  
카사흐의 “아빠”보다도  
그투씨야의 “나나”보다도  
조선의 “어머니”란 말이  
내 정신엔 뿌리 더 깊다

- 김준, 「나는 조선사람이다」 전문(김준, 1997, p.98)

화자는 자신이 원동의 조선사람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이때 화자의 조상들은 가난을 면치 못한 조국으로부터 “강건너”로 쫓겨난 신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는 곳이 중앙아시아이지만 러시아나 카자흐의 말보다 “조선의 어머니”라는 말이 더 정다운 것처럼 화자의 정신에 뿌리 깊게 새겨진 것은 조선이라고 말한다.

나도 로씨야 사람들이  
월가강을 그렇듯 반기며  
오까의 별판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찌 모르랴  
월가의 높은 언덕에 서서  
깊은 생각에 묻혔던 고리끼,

## 2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랴자니 별판에서 하루종일  
 얼빠지게 헤매던 예쎄닌  
 거기는 그들이 태어난 고장  
 또 자라난 땅이지요  
 기나긴 세월을 두고  
 그 고장 그 땅을 위하여  
 저들의 선조들은  
 땀뿐이 아니요  
 피도 얼마나 흘렸던가  
 누구에게나 아비, 어미 있으며  
 그들이 부르던 노래뿐인가  
 그들이 남긴 바구니까지  
 우리에게는 매우 귀하거니  
 덮어놓고 낚아빠졌다고  
 소홀히 나무라는 년석들을  
 나는 크게 미워해요

-강태수, 「소홀히 나무라지 말라」 전문(레닌기치, 1968. 10. 21, 문예페지)

러시아 사람들이 존경하는 고리끼와 예쎄닌이 태어나고 자란 월가강과 오까의 별판을 사랑하듯 고려인들도 선조가 남긴 노래와 바구니까지 소중하다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귀중하거나 거창해보이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아비, 어미”가 있는 것처럼 고려인들에게는 “노래”가 있으며 그들에게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는 조선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놓고 낚아빠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화자는 그런 사람들을 “크게 미워”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고려인의 제2의 고향인 연해주와 조선에 대한 형상화를 탄압하는 지배질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들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인들이 겪고 있는 이중의 정체성은 지배질서로 편입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조선민족의 정체성의 혼란이며 이는 지배질서 내의 국민



으로서의 문화 행위와 민족으로서의 문화 행위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지배질서의 권력이 강화되어 구심력이 커질수록 소수민족의 정체성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배질서의 논리에 따르고 자신을 거기에 맞추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저항으로 위협을 감수하며 자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글을 쓰거나 어느 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려인들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자 하였다. 고려인 시문학에서 이러한 양상은 결국 동일화를 통한 반동일화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3. 결론

1937년 원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비에트라는 거대한 지배질서 하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한국어 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언어로 문학 활동을 지속하였다. 한글이라는 모국어에 매개로 창작활동을 했다는 것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소비에트라는 거대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에 환원시키지 않고자 하는 주체들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탈식민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식민지 현실 속에서 정신의 탈식민화를 실천하기 위한 저항의지의 표현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염두 했을 때, 고려인 시문학에 나타나는 탈식민성은 지배질서에 대한 부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세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첫째, 실제 기억의 복원이다. 고려인 시문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배질서 체계에 대한 부정은 억압되어 왔던 실제 기억을 호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행위는 억압과 숨김의 상징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부의 한 양상으로, 현재 상황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이자 탈식민적 저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실의 공간이 결핍의 공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강제이주 후 지배계급과의 동일화를 통해 정체성을 찾고자 한 고려인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자신들이 지배계급과 같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 2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상상계에서 형성되는 주체성은 결국 허구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본 자신의 총체적인 모습은 거울을 통해 본 허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거부와 방식으로 고려인들은 또 다른 지배질서에 대한 부정과 저항의 양상으로 현실공간이 결핍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고 완벽한 소통의 공간을 찾고자 한다.

셋째, 강요된 이미지를 거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모국어에 대한 재인식이다. 한 민족은 그 언어를 통해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고 민족의식을 공고히 한다. 언어는 민족을 구별하는 데에 혈통, 환경, 역사, 기질과 함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볼 때 고려인 시문학이 문학성을 떠나 주목받아야 할 가장 큰 점은 바로 그들이 모국어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움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에 위배되는 것이다. ‘모국어’를 통한 민족적, 인종적 ‘기억’의 재현은 불온하고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국어’는 ‘모국’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국어’ 자체가 내뿜는 언어적 아우라에 의해 ‘모국’에 대한 상상을 무의식화하는 작용을 한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우리의 세계관을 구성한다. 스탈린 치하에서 자신을 고려인이라고 인식하거나, 나아가 자신을 고려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자초하는 행위에 속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요된 이미지를 거부하고 모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모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의식은 다분히 지배질서에 대한 부정의 한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신문 《레닌기치》, 크즐오르다 알마아따, 1938년~1990년.
- 신문 《고려일보》,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1991년~1997년.
- 종합시집, 『꽃피는 땅』, 알마아따 사수쉬출판사, 1988.
-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1989.
- 고려인문화협회 역, 강희진 외 역, 『우리들의 영웅』, 타쉬켄트 니자미사범대학교, 2007.
- 김성곤, 「탈식민주의시대의 문학」, 1992. 여름호.
- 김 준, 『그대와 말하노라. 알마아따』, 사수쉬출판사, 1977.
-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출판부, 2004.
- 더글러스 로빈슨, 정혜옥 역, 『번역과 제국』, 동문선, 2002.
- 들뢰즈 · 가타리, 조한경 옮김,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97.
-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2006.
- 이경원, 「탈식민주의 계보와 정체성」, 『비평과여론』, 2001. 6, p.10.
-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 양원식, 『카자흐스탄의 산꽃』, 시와진실, 2002.
-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1995.
- 유현식, 「기억과 행위의 변증법」, 『철학과현실』 40, 1999, p.208.
- 응구기 와 씨옹오,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문학』, 인간사랑, 1995.
- 정상진,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지식산업사, 2005.
- 장상희 · 이성호 · 강세영 공저, 『일탈의 사회학』, 경문사, 1986.
- 존 맥클라우드, 박종성 외 역, 『탈식민주의 길잡이』, 한올아카데미, 2003.
-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2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Abstract

## A Study on the aspects of negation against ruling order in Koreans' Poetry Literature

Kang, Hoi Jin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various postcolonial aspects of the Koreans' poetry literature. Koreans who were emigrated to Central Asia from Wondong by force in 1937 were under the huge ruling order of the Soviet in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reas. However, they ventured to do literary activities in Korean in such a situation that Korean education was not easy. Their literary activity using Korean was seen as an aspect of their resistance not to be ruled by the huge ruling ideology of the Soviet.

The postcolonial consciousness of the Koreans' poetry literature can be characterized that negation of ruling order. Thi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aspects.

(1) restoration of real memory. They wanted to escape the symbolic of repression and disguise. It seems to be as an aspect of negation, their literary activity was seen postcolonial resistance against ruling order.

(2) spatial recognition of lack. After Koreans who were emigrated to Central Asia, they tried to identify ruling class for a long time. However, they realized that they couldn't equal to ruling class and they recognized their residence was the lack of space. Therefore, they tried to find space of communication as the way of negation that they resisted against ruling order.

(3) refusal of forced image - reconsideration of mother tongue. Aspect and analysis of consciousness of return to their home by escape and search for a

new space were divided into (1) shaping of their home, (2) longing for mother, and (3) spatial orientation as exit. It is very important that Central Asia Koreans expressed the significance and longing of mother language. Their literary activity violate against ruling ideology. Even though Mother language could not get the messages of mother country entirely, Mother language's aura itself makes Koreans can imagine mother country. Under the huge ruling order of the Soviet, It was very dangerous that they declared as Korean. Nevertheless, under this condition, Koreans denied forcing image and they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mother language.

Koreans' poetry literature which was created in this situation based on the post-colonialism.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Koreans' poetry literature from the postcolonial view.

주제어 : 중앙아시아(Central Asia), 고려인 시문학(Koreans Poetry Literature),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